

크리스마스엔  
거짓말을 해도 될까요

tel. 010-8474-6462  
e-mail. gug9090@naver.com

## 크리스마스엔 거짓말을 해도 될까요

### 등장인물

성찬	
아내	성찬의 아내
아들	성찬의 아들, 6세
성찬母	성찬의 母
성찬父	성찬의 父
5세성찬	성찬의 과거, 5세
7세성찬	성찬의 과거, 7세
9세성찬	성찬의 과거, 9세

### #1. 변화가 길거리. 밤.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뼈까뻛쩍한 거리 풍경이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리고...  
떨끔한 정장을 입은 성찬, 씩씩하지만 어딘가 급한 모습으로 걷고 있다.

### #2. 아파트 복도. 밤.

도어락이 열리고, 청색빛을 뿜는 도어락 번호키가 보인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 1, 2, 2, 4...  
도어락이 닫히고, 철컹- 문 여는 소리가 들린다.

### #3. 가정집. 거실. 밤.

소박한 냄새를 풍기는 거실,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이 어지럽혀져 있다.

푹한 표정으로 트리 장식을 매만지고 있는 성찬의 아들.  
아내가 성찬을 반긴다.

아내        왔어? 옷부터 벗어.  
성찬        (구두를 벗으며) 응, 늦었지. 먼저 하고 있었네.  
아들        (시무룩하게) ...다녀오셨어요.  
성찬        아들! 이리 와!  
아내        옷부터 벗어, 옷부터.  
성찬        왜, 왜.

아내에게 떠밀려 안방으로 들어가는 성찬.

#### #4. 가정집. 안방. 밤.

성찬, 정장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성찬        왜 저래? 뭘 일 있어?  
아내        어린이집에서 전화 왔었어. 거짓말 쳤대.  
성찬        거짓말? 무슨 거짓말?  
아내        췌. 아니, 저기... 실내화 자기가 까먹고 안 가져가 놓구 누가 훔쳐  
              간 거 같다고 거짓말한 거지. 무서웠나 봐, 혼날까 봐.  
성찬        실내화?  
아내        그래서 쌤들이 실내화 범인 찾는다고 마악 했나 봐.  
성찬        혼 좀 낼게, 내가.  
아내        내가 많이 혼냈어. 근데 특하면 울어버려서... 종일 속상해가지구.  
성찬        벌써부터 거짓말해서 큰일이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가는 건데.  
아내        너도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가고 있네.  
성찬        나? 나 왜?  
아내        똑바로 안 벗어 놓을래?

성찬의 벗은 양말이 뒤집힌 채다.

성찬        아이구, 언제 이게...  
아내        아, 그 작년에 썼던 별 모양 큰 거 있잖아.  
성찬        별 모양?  
아내        트리 꼭대기에 다는 장식. 흰 색깔. 그거 어딴는지 알아?

성찬        글썸에.

성찬, 벗은 옷을 주워 거실로 나간다.

### #5. 가정집. 거실. 밤.

베란다 미닫이문을 열고 빨래통에 옷을 골인시키는 성찬.  
이어 축 쳐져있는 아들을 들어 올린다.

성찬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돼. 아빠가 거짓말 제일 싫어하는 거 알지?  
아들        …네에.  
성찬        많이 울었네. 이거 말라붙은 거 봐.  
아내        너, 엄마 아빠가 크리스마스이브니까 넘어가 주는 거야.

제 알아서 하겠다는 듯, 아내에게 웅크하는 성찬.  
아들을 소파에 앉힌다.

아내        그나저나 큰일이네. 이번 크리스마스엔 산타 할아버지 못 오시겠다.  
아들        네? 왜요?  
아내        거짓말하는 어린이 집엔 산타 할아버지 안 오시거든.  
아들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성찬        거짓말. 산타가 어딴어.  
아들        네?  
아내        야. (성찬의 허벅지를 찰싹 때린다)  
아들        산타 할아버지 안 오시면, 그럼… 그럼 레고도 없는 거예요?  
성찬        산타 같은 건 없…  
아내        여보!  
성찬        아니, 왜.  
아내        (성찬에게 눈치를 주고, 아들에게) 우리 아들이, 트리 막 예쁘게 꾸며놓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보고 오시지 않을까?  
아들        진짜요?  
아내        그러엄. 일 등으로 오실 거야.

아들, 소파에서 필적 내려와 트리를 열정적으로 꾸미기 시작한다.

아내, 아들을 보고 뿌듯하게 웃는다. 심기불편한 표정의 성찬.

아내        아, 그게 창고에 뒀었나.  
성찬        응? 뭘?  
아내        별 모양 큰 거. 흰 색깔.  
성찬        음... 작년에 쓰고 버리지 않았어?  
아내        아냐. 분명 어디 넣어뒀었는데... 가만 있어 봐. (일어나며) 안방  
             창고에 있나?  
성찬        앉아 있으세요오. 내가 찾아볼게.

성찬, 아들의 머리를 한 번 쓰다듬곤 안방 창고로 향한다.

아내        좀 깊숙한 데 있을 거야.

#### #6. 가정집, 창고, 밤.

안방에 딸린 작은 창고.

드르륵, 소리가 들리고 탁- 불 켜는 소리가 들리면 황색 조명으로 성찬의 얼굴이 보인다.

1평 남짓의 창고 공간. 갖가지 상자와 안 입는 옷들이 어지럽다.

성찬은 좌식으로 앉아 창고를 뒤적이다.

그러다가 어느 황갈색 상자를 열어보곤 멈칫하는데...

상자 안으로 보이는 성찬의 영정사진... 성찬은 영정사진에 내려앉은 먼지를 조심하  
             끌어본다. 그러곤 성찬이 영정사진을 들어 올리자,

영정사진 밑에 깔려있던 성찬의 분홍색깔 육아일기 노트가 보인다.

성찬, 육아일기를 조심스레 꺼내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기 시작하자,

천천히,

성찬의 가정집에서, 집 구조가 완전히 다른, 과거의 옛 가정집으로 장소가 교차된다.

#### #7. 과거. 옛 가정집. 거실. 밤.

(Caption)

1993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

거실에서 트리를 꾸미고 있는, 과거의 5세성찬과 성찬父母의 모습이 보인다.

- N.성찬母 “친구백구십삼년, 십이월 이십사일. 너와 함께 맞는 다섯 번째 크리스마스이브 날이야.”
- 성찬父 자, 자. 불을 한 번 꺼볼까? 이제?
- 성찬母 누가 끝까야? 엄마가 끝까?
- 5세성찬 제가 끝래요! 제가!
- N.성찬母 “작년엔 트리 만들기에 일절 관심 없었던 성찬이가, 올해는 얼마나 눈이 반짝반짝하는지.”

거실 불을 끄는 5세성찬. 성찬의 눈동자에 번쩍거리는 트리가 비친다. 신나게 엄마 아빠 사이에 앉은 성찬. 트리를 감상하는 가족의 뒷모습.

- 5세성찬 산타 할아버지도 좋아하시겠죠? 우리 집에 일 등으로 오시겠죠?

성찬母, 5세성찬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 N.성찬母 “어른이 된다는 건 수많은 모순을 견디는 것이다. 성찬이가 산타의 존재를 물었을 때, 그 구절이 갑자기 생각났다?”
- 성찬母 그럼. 우리 집 트리가 너무 이뻐서, 우리 집에 일 등으로 오실 거야.

성찬母와 성찬父, 서로의 눈을 맞춘다. 배시시 좋아하는 5세성찬.

- N.성찬母 “엄마는 산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도 너에게 산타의 존재를 확신하는 엄마가 꽤 모순적이었어. 성찬이도 언젠가, 이 모순을 느끼는 날이 오겠지?”

## #8. 과거. 옛 가정집. 거실-베란다. 아침.

(Caption)

199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

환한 아침, 거실 소파에 앉아 티브이를 시청 중인 성찬父母에게

7세성찬이 졸린 듯 눈을 비비적대며 다가간다.

N.성찬母 “너와 함께 맞는 일곱 번째 크리스마스이브 날. 성찬이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평화롭던 우리의 아침은 깨져버렸지.”

성찬母,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성찬父, 고개를 숙이고 간신히 웃음을 참는다.

성찬母 뭐, 뭐라고 했어?

7세성찬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성찬父 빨래가 다 됐나...

성찬母 여보, 빨래 없어!

성찬父 다 됐을 거야.

성찬父, 베란다로 급히 나간다.

성찬母, 쓴웃음을 지어 보인다.

N.성찬母 “너희 아빠는... 참도 무책임하지.”

성찬母 그게, 그러니까... 그건 황새가 베란다 문으로 헤가지구...

성찬父 (베란다에서) 여보! 너무 뻥한 거 아니야?

성찬母 여보!

여전히 푹망푹망한 7세성찬의 눈망을...

성찬母 ...그, 황새가 있잖아. 저기 베란다 창문으로 바구니 하나를 물고 들어오거든? 그 바구니 안에 아기가 있는 거야. 성찬이두 그렇게 왔구.

성찬父, 베란다에서 키득거리고 있다.

N.성찬母 “맞아. 거짓말이야. 오늘 우리 성찬이한테 큰 거짓말을 했어. 너도 언젠가 알게 되겠지. 그때가 됐을 때, 엄마를 너무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찬父 (들어오며) 여보, 오늘도 그 황새님 한 번 뵙는 거 어때? 간만에 보고 싶은데.

성찬母 미쳤어? 애 앞에서 증말.

7세성찬, 갑작스레 베란다로 뛰어간다.  
그러곤 킁킁대며 베란다 창문 열기를 시도한다.

성찬父      성찬아, 왜 그래?  
7세성찬      황새 온다니세요. 부딪치지 않게 잘 열어줘야 해요.

성찬父母, 휘둥그레진 눈을 맞춘 뒤, 이내 폭소한다.

### #9. 과거. 옛 가정집. 안방. 늦은 밤.

(Caption)

1997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

안방 침대에 누운 성찬母는 이마에 물수건을 얹은 채 골골대며 통화를 하고 있다.

성찬父      (통화) 약 챙겨 먹구.  
성찬母      응, 아까 먹었어.  
성찬父      (통화) 같이 못 있어 줘서 미안해.  
성찬母      걱정 말구. 일 잘 마치고 와.  
성찬父      (통화) 응, 미안해. 얼른 갈게.

한숨을 푹 내쉬는 성찬母.

N.성찬母      “너와 함께 맞는 아홉 번째 크리스마스이브야. 평소 같았으면 트리를 만들고 있을 텐데… 올해는, 엄마가 너무 아프네.”

9세성찬, 물 담긴 대야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온다.

성찬母 이마의 물수건을 가져와 물에 적셔 짜는 9세성찬.

성찬母의 이마에 물수건을 다시 올려준다.

성찬母, 뿌듯하고도 아련한 웃음을 짓는다.

N.성찬母      “엄마를 걱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너가 낯설었어. 항상 천진한 눈빛만을 보내던 너였거든.”

9세성찬      엄마…

성찬母      응?... 왜.

9세성찬    엄마는, 엄마는 안 죽죠?  
성찬母    응?  
9세성찬    엄마는 평생 안 죽는 거 맞죠?

*성찬母, 당혹스러운데도 몸이 아파 허약한 반응을 보인다.*

9세성찬    평생 안 죽는 거죠? 그죠?  
성찬母    그럼. 안 죽지. 퍼영생 안 죽지... 우리 성찬이 두고 어디 안 갈 테  
          니까, 걱정하지 마.

*9세성찬, 안심한 듯 침대 위로 올라 성찬母의 품속으로 편안하게 안긴다.*

N.성찬母    “엄마가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인지, 엄마도 몰랐어. 우리  
          성찬이도 언젠가 알게 되겠지. 엄마가 떠나고, 스스로 제 가족을  
          이루었을 때면, 그때는 알게 되겠지. 우리는,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성찬母의 머리맡에 놓인 분홍색깔 육아일기 노트가 보인다.  
육아일기 노트가 제 스스로 펼쳐지며,  
천천히,  
다시금 현재의 가정집으로 장소가 교차된다.*

#### #10. 현재. 가정집. 창고-안방-거실. 밤.

*창고에서 육아일기를 보고 있는 성찬의 등이 보인다.  
아들이 안방으로 들어와 창고의 성찬을 부른다.*

아들        아빠!

*육아일기를 황급히 덮는 성찬.*

성찬        응, 왜, 아들. 벌써 다 만들었어?  
아들        엄마가 아직도 못 찾았냐고 물어보래요.  
성찬        엄마한테, 이 참을성 없는 아줌마야, 조금만 기다리라 그래.  
아내        (거실에서) 야! 죽는다!

성찬 (웃으며) 아빠 얼른 찾구 갈게. 가서 기다려.  
아들 네, 아빠.

돌아서는 아들. 성찬은 무릎 위에 엎어놓았던  
성찬母的 영정사진을 양손으로 잡고 든다.

아들 아, 아빠.  
성찬 (아들을 보며) 응, 아들.

성찬의 시선과 몸이 아들로 향한다. 자연스레 성찬母的 영정사진도 아들을 바라보게  
된다.

아들 트리 예쁘게 만들면, 산타 할아버지 진짜 오시겠죠? 레고도 같이  
들고요?

영정사진을 들고 있는 성찬의 정면 모습.  
성찬은 영정사진을 어루만지며 대답한다.

성찬 ...그럼. 오시지. 오실 거야. 레고도 같이 들고, 산타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일 등으로 오실 거야.

안방 문틈으로, 거실에서 성찬과 아들을 보고 있는 아내. 뿌듯하게 웃는다.

끝.